

단속 비웃듯 불법 성인오락실 되레 '성업'

경찰·업주 유착관계 의혹 속 주택가까지 침투

서민가정 파괴 사회악 불구 솜방망이 규제 비난

경찰의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도 주택가까지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다.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이름뿐인 이른바 '바자' 시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가는 업자들의 '교묘함'과 단속 정보를 흘려주며 '공생'하려는 일부 비리 경찰의 유착, 경기 침체 속 일부 서민들 사이에서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식 인식이 급속히 퍼져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운영은 실제 업주(조직폭력배)들이 아닌 지인, 바지사장들이 맡아하는 구조로, 단속에 적발되면 바지사장

들은 입건되고 대신 실제 업주들은 뒤로 빠진 채 변호사비용 등을 대주는 식이다. 자금을 가진 실제 업주들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성인오락실이 단속과 상관없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한 뒤 수익 원의 부담이득을 챙긴 불법성인오락실 6곳의 하루 평균 매출이 1000만~1500만 원(순이익 700만~1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해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큰 타격이기 때문에 1억원을 내더라도 과징금이 더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했

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적발된 오락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물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먹을 게 많은" 불법 오락실의 특성상 단속 기관과 업주의 유착관계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 5일 압수수색을 당한 북부경찰 A경위의 경우 지난해 9월~10월께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주는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불법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마다 해당 성인오락실들은 미리 가계문을 받아 단속을 피했다는 게 광역수사대 분석이다. 경찰의 울 상반기 불법 오락실 단속 건

수는 188건으로 전년대비 255건보다 26.3%(67건)감소했다.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불법 오락실이 적지 않은데다,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해석도 분분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한탕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에만 최소 수 백 곳에 달하는 성인오락실이 운영중인 데는 대박의 유혹을 쫓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업주나 이용자들이 단속을 겁내지 않는다"며 "성인오락실을 대체할만한 여가정책 없는 성인오락실과 관련한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품 수수와 공금횡령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현지 경찰관의 신분을 일반 회사원으로 바꿔치기까지...

광주북부경찰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음주운전 또는 공금횡령은 이전 더 이상 비위도 아니더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무서운(?) 지팡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바리 방지 및 부패 척결을 내걸고 비리예방교육 등을 한 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자정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품수수·음주운전에 도박경관 신분 바꿔치기까지

광주 북부경찰 탈선 '점입가경'

북부경찰 A경위는 지난해 9~10월께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A경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업무부서에서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말엔 교통과 B경사가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계급 강등됐으며 같은 해 5월 말엔 B(여)경사가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해 9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또 도박을 하다 적발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현지 경찰관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기록하다 발각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관 본연의 임무인 치안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된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안팎에선 고위 간부의 지휘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리척결에 의지가 있는지의 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비위로 인해 조직 전체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오명을 벗기 위해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후광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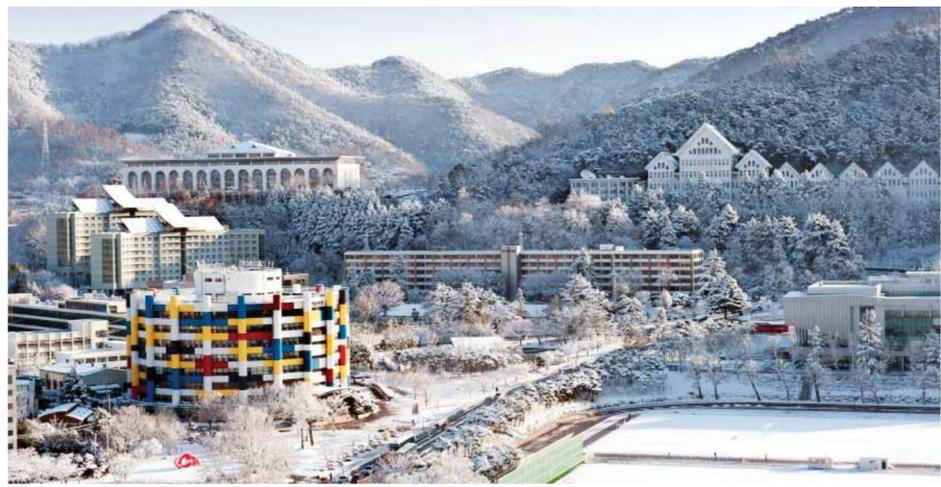
최정운 서울대 교수

전남대학교는 민중평화인권학술상인 '제7회 후광 학술상'에 최정운(57·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대는 이날 "1980년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을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오월의 사회과학'을 발표하는 등 5·18 연구의 새로운 장을 제시한 학자로서 후광 학술상 제정 취지에 들어 맞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오월의 사회과학'에서 5·18을 밖으로 드러난 사회적 사실로 접근하지 않고, 시민이 겪었던 내적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캠퍼스 '雪國' 조선대 설경사진이 페이스북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수일간 지속된 눈으로 인해 설국으로 변한 조선대 캠퍼스의 전경 사진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오르자마자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설경사진은 조선대 페이스북에서 도달 수가 5일 하루에만 200만건을 넘었으며, 7일 오후 325만건에 달했다. <조선대 제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해질 19:08
해짐 17:20 맑음 08:33

빙판 출근길 조심조심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그치겠고 낮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눈온뒤겹 0/8	보성	비또는눈 -2/8
목포	비또는눈 2/8	순천	비또는눈 0/9
여수	비온뒤겹 3/9	영광	비또는눈 0/7
나주	눈온뒤겹 -1/8	진도	비온뒤겹 3/8
완도	비온뒤겹 3/8	진주	눈온뒤겹 0/6
구례	눈온뒤겹 -2/7	군산	눈온뒤겹 -1/5
강진	비또는눈 1/8	남원	눈온뒤겹 -2/6
해남	비또는눈 1/8	홍산도	비온뒤겹 7/9
장성	눈온뒤겹 -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	서~북서	1.0~2.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	남서~서	1.0~2.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식중독	32
운동	3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52	08:10
15:36	20:48	
여수	10:16	03:42
	22:18	16:16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	☁	☁	☁	☁	☀	☁
-2/7	-1/9	3/7	0/6	-1/4	-2/5	0/4

전교조 위원장에 변성호

광주 지부장에 정성홍씨

전남은 17~18일 선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장에 정성홍(52) 신용중 교사가 당선됐다. 수석부지부장에는 채란경(44·여) 울곡초 교사가 선출됐다.

7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정·채 후보는 지난 3~5일 37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12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광주지부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에 성공, 기호 1번 박춘애(지부장)·김병일(수석부지부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지부장 당선자는 1985년 교직에 발을 내디딘 뒤 수완중·신용중 등에서 학교혁신운동을 펼쳤다.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채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는 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정 당선자는 "조합원들의 '참교육 실천 활동'의 부흥으로 전교조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며 "민주·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진보교육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정확한 비판과 올바른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7대 전교조 위원장에는 현 사무처장인 변성호(54) 서울 영파여고 교사가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참교육실장과 총북지부장을 지낸 박옥주(45·여) 충북 청룡초 교사가 선출됐다. 전남지부장 선거는 오는 17~18일 실시한다. 조창익(해남제일중 교사)·김현지(장흥 관산남초 교사) 후보가 단독 후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A NCS기반 호남 광역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B NCS기반 산업체 직무교육 강화

C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 책임지도제 실현

D 광주·전남 전문대학 중 취업을 1위
(2014년 | 일반계열 | 기 취업자 제외 | 취업률 66.1%)

www.dorip.ac.kr

전남도립대학교 Jeonnam Provincial College

학교안내 061)380-8461~4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생명인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꿈에 날개를 다는 젊고 강한 대학

전남도립대학교